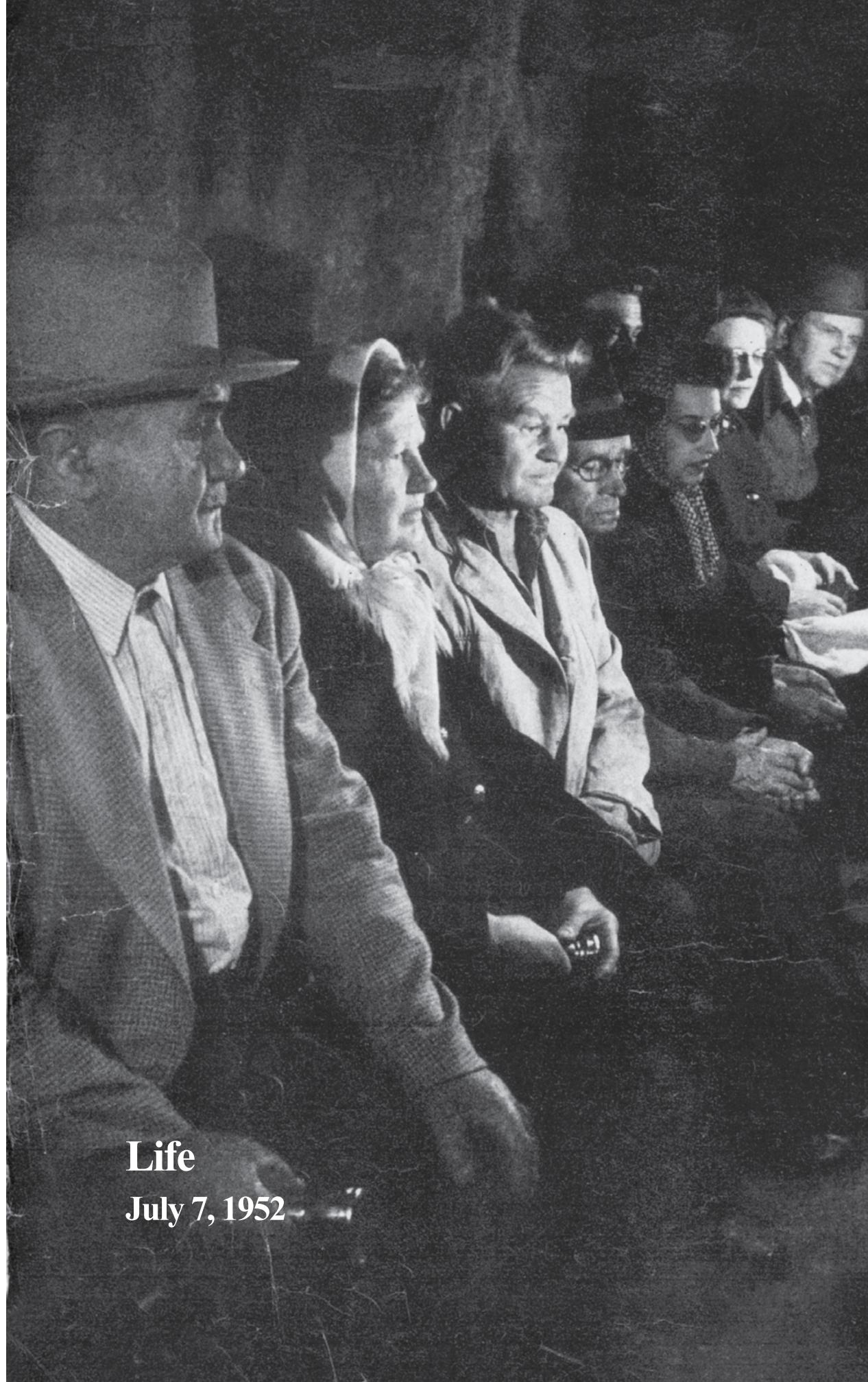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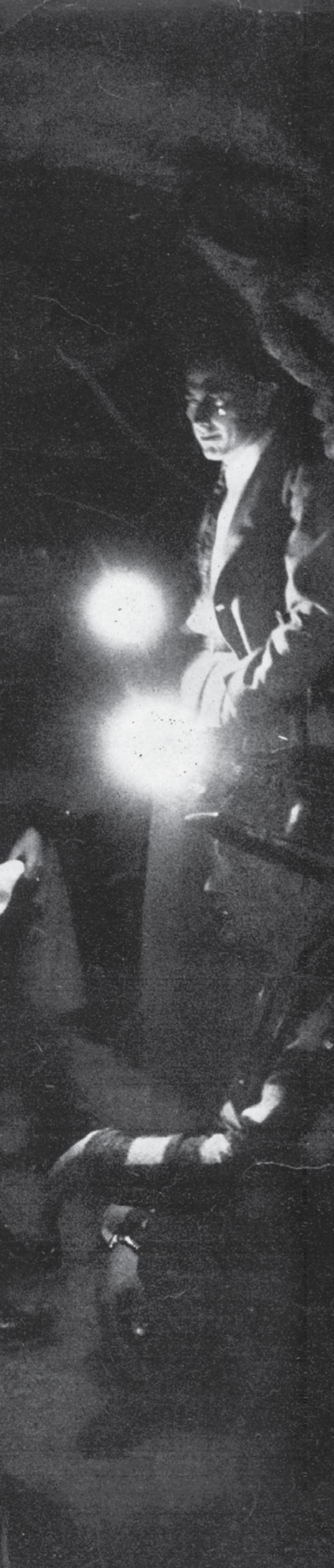


“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곳, 오늘도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천연 라돈의 신비한 치유능력 Merry Widow Health Mine



지팡이나 훨체어에 몸을 의지해 광산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두 발로 걸어나왔다면 믿을 수 있을까. 광산 속에 허준이나 의성화타같은 명의가 살고 있다면 또 모를까. 그러나, 속는 셈 치고 이곳을 한번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혈팬이 될 수 밖에 없다. 먼 길을 고된 줄 모르로 일년에 몇번이고 찾아가는 사람들, 자연이 주는 그 귀한 능력이 놀라울 뿐이다. 도대체 그 안에는 뭐가 있길래.

자칫하면 과장이나 허위광고처럼 들릴까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소개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6월.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치료를 핑계삼아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도 웰빙 휴가지로 적당한 Merry Widow Health Mine을 추천한다.

건강한 삶을 되찾는 사람들 – 이곳에 얹힌 이야기

Merry Widow Health Mine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0년대에 발간된 ‘Life’ 란 미국잡지에는 광산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나 들 것에 실려 광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사진이 실려 있다. 지금은 빛 바랜 흑백사진으로 남아있는 이 귀중한 자료를 통해 Merry Widow Health Mine의 역사와 그곳의 신비한 효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신비한 광산은 내쇼날 지오그라픽에도 이미 여러번 소개된 바 있고, 미 전역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걸어나오는 일은 새 삼스러울 것도 없는 흔한 일인가 하면, 40년 이상 동굴을 드나들던 96세 노인은 오히려 아들보다 젊어보인다.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먹다가 광산에 몇번 다녀온 뒤로는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람도 여럿,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썩어가던 환자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되기 시작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처가 호전되기도 했다. 손가락이 뒤틀리거나 손마디가 툭툭 튀어나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광산을 몇번 드나든 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Merry Widow Health Mine의 놀라운 힘은 광산 안

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빼놓지 않는 것은 바위 사이에서 샘솟는 물을 받아가는 일. 커다란 물통에 몇통씩이나 물을 받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이 물이 천연 미네랄 워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물 또한 광산 만큼이나 신비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물을 마신 사람의 병이 호전되기도 하고, 이 물로 눈을 씻은 사람의 백내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실제로 Merry Widow Health Mine의 한 창고에는 그동안 이곳을 다녀간 뒤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들의 사연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들이 가득 쌓여있다. 오랜 세월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곳, 오늘도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천연 라돈의 신비한 효능

광산 속 신비한 명의의 정체는 바로 라돈(radon), 방사선 물질의 일종이다. 다량의 방사선 물질에 인체가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가 되지만, 소량의 방사선 물질은 치료요법으로도 이용되고 있을 만큼 인체에 이로운 역할을 한다. 특히, 라돈의 효능은 이미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바 있어, ‘라돈온천’이나 ‘라돈탕’이 웰빙과 함께 떠오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라돈이 인체에 적절한 양 배출되는 곳은 전 세계에서 3곳. 시베리아와 벨기에, 그리고 몬타나의 Merry Widow Health Mine가 바로 그곳이다. 특히, Merry Widow Health Mine은 관절염이나 류마티스를 비롯해 암, 만성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같은 성인병, 아토피, 알레르기 등의 피부질환, 편두통, 우울증, 기타 다른 질병 들에 대해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는 환자들에게 라돈이 생성되는 광산에 다녀올 것을 처방할 만큼 그 효능이 널리 알려져 있어 라돈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학설을 뒷받침한다. 몸 안에 들어가 호르몬과 신경 등을 자극해 몸의 면역 능력을 높여 짚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라돈의 효능이다.

“들어가서 사람들과 얘기만 하고 나왔는데 몸이 좋아졌어요.” Merry Widow Health Mine에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에 들



어가 있는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무색, 무취의 라돈 가스가 호흡과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자연히 스며들기 때문이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몸이 치유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은 사람들이 이 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오래 들어가 있는다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보통 일년에 30여시간 정도, 1시간 들어가 있다가 2시간 정도 나와서 쉬는 것을 하루에 3~4회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반드시 한번에 30여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고, 일년에 두어번 쯤 나누어 다녀오는 것도 좋다.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장기간 투숙해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뿐 아니라 웰빙 휴가를 위해 Merry Widow Health Mine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Merry Widow Health Mine으로 떠나는 건강한 여행정보

Merry Widow Health Mine까지는 차로 11시간, 가깝지 않은 거리다. 다행히,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여정을 제공하는 이들이 있다. 한우리 부동산의 Chang Kim 대표와 아내 김혜옥씨가 바로 그들이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김혜옥씨는 심한 관절염으로 걷기도 쉽지 않았고, 집안일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 그러나, 우연히 소개를 받고 찾아간 Merry Widow Health Mine을 여러번 다녀오고 난 후에는 정상인보다 더 바쁜 일상을 소화해내고 있다. 누구보다도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알기에 Merry Widow Health Mine을 널리 알리고 싶어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쉬워요. 나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고생하는 사람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아니까요. 제 경우만 해도 그렇죠. 오죽 하면 그곳을 갔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할 정도로 건강하잖아요.”

단체관광에 동행할 경우 입장료와 숙박료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해 399불. 보통 월요일 일찍 출발해 금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간단한 먹거리 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고, 미리 그룹을 짓거나 분담을 하면 편하다.

고급 펜션과 같은 숙박과 편의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가족 단위의 휴가자로도 손색이 없다. 2 베드룸에 주방시설, TV까지 모두 갖춘 편리한 숙박시설이 1박에 30~40불, 필요한 물품을 쇼핑할 수 있는 그로서리나 시내는 20분 거리이다. 레크레이션이나 예배, 집회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홀이 있어 단체여행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 단체로 숙박을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할 것. 5~8월 사이에는 해마다 오는 사람들이 다음해 숙박을 미리 예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화를 걸어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이외의 경비로는 Merry Widow Health Mine의 입장료가 1회 5불, 하루 데이패스 15불, 1년 연중 패스는 150불이다.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동물의 입장도 가능하다.

이번 여름, 특별한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 Merry Widow Health Mine을 방문해보는 것이 어떨까. 휴가 일정이 넉넉하다면 스포케인 어디쯤에서 1박을 하고, 늦은 아침을 먹은 뒤 가던 길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조금은 고생스럽지만 하루나 이를 쯤은 숙박시설 아닌 캠핑장에서 보내는 것도 좋고, 이 기회에 옐로 스톤이나 주변의 관광지를 한번 둘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족들과 함께 ‘추억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여정이 될 수도 있기에.

〈사진/김영환 글/이문진 기자〉

Merry Widow Health Mine
PO Box 129
Basin, MT 59631
Tel. 406-225-3220
www.merrywidowmine.com
단체관광 문의
253-315-2667
chang@merrywidowmine.com

천연 라돈 동굴을 다녀와서 ...

헬스마인 체험 후기

저는 어렸을 적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후로 계속 피가 잘 통하지를 않았고, 얼마전에는 절단을 해야할 정도로 검붉은색으로 변하면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저희 딸의 선배가 몬타나 동굴을 소개했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힘든 상황이라서 가족들의 권유로 그곳을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더 아픈가 싶더니 다리색이 분홍색으로 변한 것을 보고 치료가 되고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곳에서 권하는대로 열심히 물에도 담그고, 물도 마시고, 하루 4번 치료를 빠지지 않고 해봤었지요. 돌아오는 날에는 다리에 힘이 솟고, 그곳에 다녀온 후 노인회에서 주최하는 달리기 대회까지 나갔답니다. 이곳에서는 그곳에 갈 회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 시카고에서 은미 엄마 (65세)

저는 크게 아픈데는 없지만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갔었지요. 그런데 전에 감기를 심하게 앓아서 후각을 잃었었는데 그곳 치료를 받는 이틀만에 뚫려서 생각지도 않게 치료를 받고, 다음달에는 아픈 친구를 데리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신기하게 먼 여행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기운이 솟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 헤드럴웨이 Mrs. 서 (69세)

나이가 들면서 이유없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어떤 때는 집에서 꼼짝도 못했었는데, 그곳 동굴을 다녀온 후, 힘이 솟고 못 쓰던 팔 한짝을 끝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지요. 저를 보고는 주위 사람들이다들 그곳을 가고 싶어들 합니다. — 타코마 Mr. 이 (67세)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30년 전에 다리를 다쳐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요. 친구가 권해서 몬타나 동굴을 갔었지요. 동굴 치료 이틀째에 지팡이를 차에다 놓고 내렸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지팡이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어서 아차 차에다가 두고 왔구나 하면서 기질러 가다가 생각하니 멀쩡이 지팡이 없어 제가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권했었지만, 믿지 못하고 늦게 온 것이 후회가 됩니다. 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빨리 데려오고 싶어요. — 캘거리 로버트 (70세)

좋다는 소문은 벌써부터 들었지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쉬워만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 한사람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제가 알리지 못한 날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서 안됐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물로 처음 눈을 씻으니까 얼마나 띠기운지 깜짝 놀랄정도였어요. 그래 이게 악이다 싶어서 열심히 그 물로 씻었지요. 이틀만에 눈이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바로 예약하고 따라갔지요. 손에 관절염이 생겨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 아팠었는데 하루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그 손으로 사람들을 일부러 때리고 다녔어요 하도 신기해서요. 그동안에 여러가지 진병이 많았는데, 나는 정말 너무나 큰 효과를 봤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지요. — 에베렛 Mrs. 홍 62세

저는 남편이 오랜 병으로 앓고 있어서 저라도 건강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잘 챙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는 혈압과 당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몬타나 동굴을 권해서 갔었읍니다. 워낙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곳 동굴안에서도- 300 피트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며 치료를 받은 것이지요. 얼마나 신기한지 동굴안

이 공기가 훨씬 맑아서 운동을 하기에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전에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나이 70에 면역치수가 올라갔다고 의사가 신기해 하더군요. — 헤드럴웨이 Mrs. 남 70세

몸이 하도 약해서 주일예배도 제대로 다니질 못했는데, 딸이 권해서 몬타나 동굴을 다녀왔지요. 지금은 수요예배, 새벽예배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건강해 졌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 린 우드 Mrs. 홍 76세

몇년 전에 추운 곳에서 무리한 일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반신마비가 잠시 와서 한의원에 다니면서 몇달 치료후에 정상적인 컨디션이 되긴 했지만 그때부터 눈물이 이유없이 흘러내려서 늘 닦으면서 생활을 했었고, 입안이 반쪽이 마비가 되어서 음식 맛을 잘 볼 수가 없었읍니다. 몬타나 동굴을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열심으로 치료에 임했다니 하루만에 눈물은 그치게 되었고 이틀째는 혀에 감각이 오면서 입안 전체에 감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일년에 두번정도는 다니고 싶어요. — 벨링햄 Mrs. 리 4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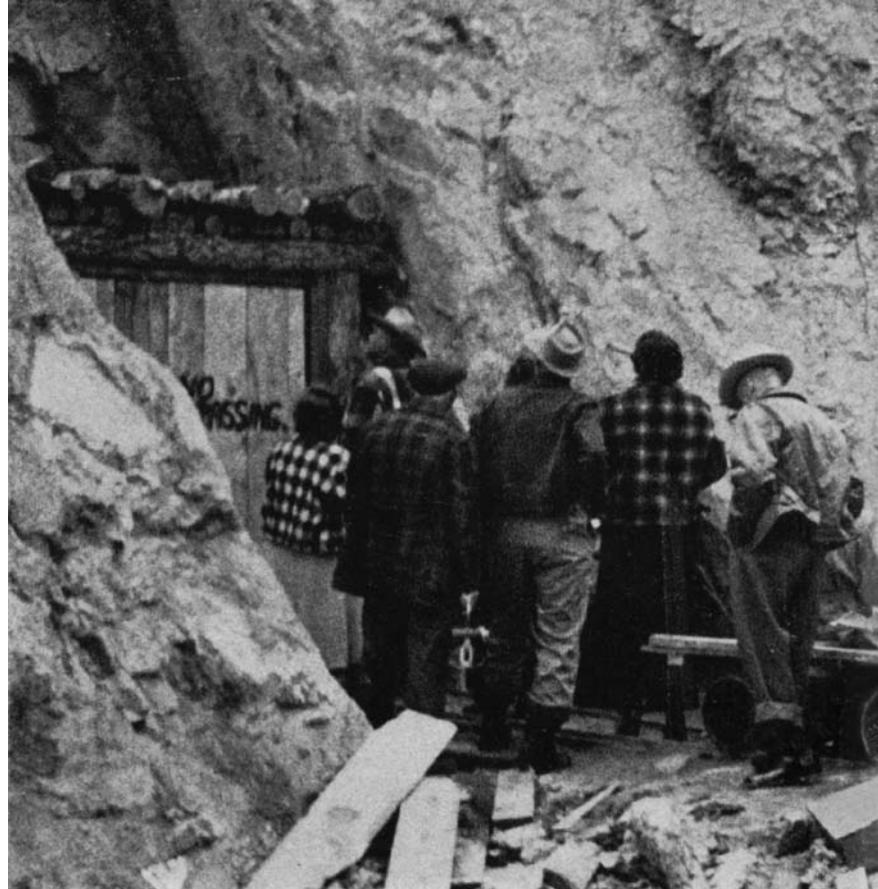
갑상선 암을 진단 받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몬타나 동굴을 소개 받았습니다. 벌써 4년이나 되었네요. 그후로 계속해서 일년에 두번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암이 쭉그러 들은 상태예요. 몸도 건강해져서 제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권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 서울 Mrs. 김 50세

수술 후 회복이 되질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딸이 권해서 몬타나 동굴을 갔었지요. 몸에서 기운이 솟고, 늘 다리에 쥐가 나서 잠도 잘 못 잤었는데 잠도 잘자게되었고, 구부리면 곧 쥐가 나서 발톱도 스스로 못 깍았었는데, 이제는 몸도 유연해졌고 쥐도 많나고 발톱도 스스로 깎을 수 있고, 정말 신기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친구들과 함께 다시 올 기회를 마련해야 겠어요. — 서울 Mr. 김 80세

나는 이곳에 오면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나는 7년전에 의사가 2개월밖에 못산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요. 간경화로 간이 굳어서 이식도 힘들어서 2개월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네 남편이 몬타나 동굴을 얘기듣고,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미자막으로 동굴에 가 보자고 권해서 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생각으로 다니기 시작했지요. 지금은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간 기능이 약해서 거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조카와 함께 입원했었는데, 그 아이는 의사 말대로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요. — 아이다호 매리앤

몇년전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망설이다가, 몬타나 동굴을 딸이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나오는 물로 눈을 계속 씻었더니 눈도 환해지고 저녁에는 침침해서 아무것도 안보이던 것이 이제는 저녁에 책도 볼 수 있게 되고 팔, 다리에 힘이 생겨서 워커를 의지해서 걷던게 이제는 지팡이만 가지고 걷게 되었어요. 9월에 한번 더 갈 예정입니다. — 헤드럴웨이 전인순 87세

<문의전화> 206-310-5085



다녀오신 분들만이 병든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귀한 장소,
3월 1일 재개장!

현대인들의

“

”

3월 1일부터 메리위도 헬스마인(Merry Widow Health Mine)이 재개장한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1월 중순까지 오픈할 예정이다. 몬태나 베이신(basin)의 광산인 이 곳은 탁월한 치료 효험을 경험할 수 있어 이미 워싱턴 주의 한국인들에게도 입소문을 타고 전해져 많은 분들이 다녀갔으며 올해의 재개장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라돈(Rn)이라는 특수물질이 광산에서 발생해 인체의 질병에 차도를 일으키는 현상을 가진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고작 여섯군데에 불과하다는데 특히 미국에서도 이 곳이 유일한 장소이다. 시애틀에서 이 곳까지 11시간의 장거리 코스라고는 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방문하기 쉬운 거리로서 헬스마인측의 버스운행도 준비되어 있다. 인체의 기능을 재생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세계적인 치유장소가 지침에 있다는 것은 시애틀 사람들에게는 분명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유서 깊은 장소인만큼 이미 3월 1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미국인들도 많다. 특히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한다면 2월 중에 예약이 필수이다.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한가지 패키지를 좀더 세분화해서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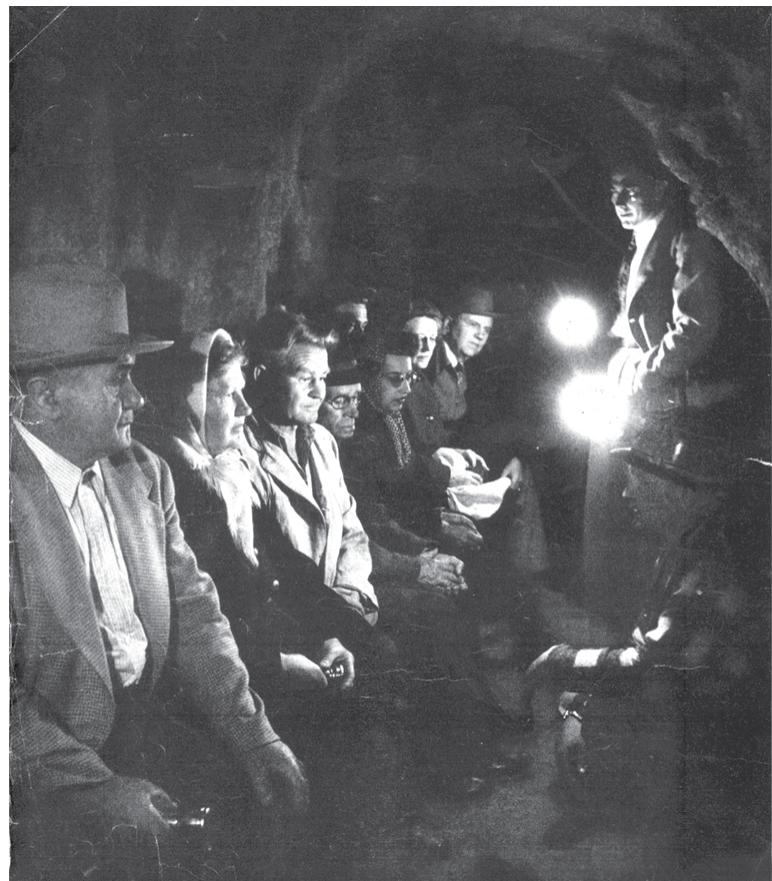


“입소문이 끊이지 않는 메리위도 동굴을 체험하세요”

특히 대부분의 노인들이 깨는다고 하는 우울증 등의 속병을 털어놓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갑작 정지가 된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흘지 않는 지면을 알았던 세상의 질고를 알고 용기와 철학을 얻는 천연적 정화 작용도 한몫한다.

가지 관광상품으로 개편해서 운행될 예정이다. 먼저 기존의 방식이었던 A패키지는 월요일에 출발해서 금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4박 5일 과정으로 비용은 \$499이다. 특징은 질병 치유의 시간으로 메리위도 동굴에 집중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B 패키지는 5박 6일을 일정으로 잡고 비용은 \$699이다. 하루는 동굴치료, 그 다음날은 엘로스톤 여행, 다시 동굴치료, 그 다음날은 그레이셔 파크 방문 순 등으로 진행되어 질병 치료와 함께 여행과 휴식을 병행해서 안배했다.

물론 가족이나 개인 단위로 각자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헬스마인측이 이렇게 패키지 상품을 만든 이유는 어디까지나 교통편이 없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 모처럼 운전과 식사준비에서 해방되어 휴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이다. 시애틀에서 몬태나까지는 650마일정도로 약 11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이기에 15인승 밴을 직접 운행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여행지의 사소한 일까지 가이드를 자청하는 일은 헬스마인 측으로서도 영리를 목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는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분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이다. 그만큼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라돈 물질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돋는 일에서 최고의 보람을 찾고 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확실히 차도를 경험하고 반신반의하는 분들은 미처 의식을 못하고 돌아온다고 말한다. 그동안 미주류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체험사례들이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다녀가신 한인들의 체험도 매우 다양하다. 주로 고질병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한 두차례 방문만으로 짚고 왔던 지팡이나 타고 왔던 휠체어가 필요없게 되어 돌아가는 사례 등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병명도 모르던 만성질환이나 암, 피부병이 차도를 보이고 완쾌되고 생존하는 경우 등은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흔하고 셀 수 없이 많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의 경우는 아토피성 만성 피부염이나 알러지 환자가 많고 중년은 성인병,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는 백내장이나 피부 건조증 등이 흔하다.

이곳의 장점은 매우 다양하다. 숙박 시설은 20여 개의 룸을 갖춘 콘도로서 식료품만 준비해 가면 식사를 손수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주방 시설, TV가 갖추어져 있고 숙박료도 하룻밤에 약 50불 안팎으로 매우 저렴하다. 근처에는 운치있는 계곡이 있고 RV 캠핑장도 있어 낚시나 휴가 등의 휴양지로도 손색이 없다. 그래서 여름 수양회라든지 그룹의 치유상담 장소, 레크레이션 장소로도 추천할만하다. 주일에는 인근의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마음껏 집을 떠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약 300 ft 길이의 천연 동굴 내에는 간이 의자가 길다랗게 놓여져 있고 발밀로 흐르는 얇은 물에 발을 담그기도 한다. 동굴의 온도는 언제나 50~60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반팔 티셔츠나 가벼운 재킷 차림만으로도 지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동굴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명상의 시간을 한시간 정도 가지면서 광물질에 인체를 노출하기도 하지만 미네랄 워터에 손발을 담그거나 계속 마시면서 치료를 극대화 한다.

이 곳은 혼자 왔다해도 결코 외롭지 않을 만큼 이야기 친구들을 만나기가 쉽다. 몇 일간 한 방에서 자고 한 동굴에서 지내다 보면 누구나

친구가 되고 모였다하면 저마다 스토리 텔러가 된다고 한다. 고통이라는 지성소에서 자신을 성찰한 사람만이 내어 놓을 수 있는 속깊은 이야깃들이 무진장이다. 자신의 인생전편을 풀어놓는 인생 보따리를 듣노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특히 대부분의 노인들이 겪는다고 하는 우울증 등의 속병은 털어 놓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정 정리가 된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혼자만 지난줄 알았던 세상의 질고를 덜고 용기와 힘을 얻는 정신적 정화 작용도 한 몫한다. 핫병이나 상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살아갈 힘을 잃고 낙담해 있을 때 방문하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항상 해마다 맨 첫번째 손님으로 도착해서 가장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리와 밥 부부를 위해서, 또한 보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쾌적한 시설과 치유의 기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헬스마인측은 오늘도 가장 준비에 부산하다. ↗

▣ 안내 ▣

- 입장료 1회 \$5, 하루 데이패스 \$15, 1년 연중 패스 \$150
- 숙박비용
1박 기준: \$33 ~ \$40.50 (5박 이상, 2인용 객실)
1인 추가 시: 1박당 \$9 추가 / 5박 이하: 1박당 \$11 추가
- 숙박시설 간이 부엌, 거실, 욕실, 샤워기와 TV, 접시, 타월 등이 구비된 1, 2, 3인실로 나뉨.
- 주소 P.O. Box 129 Basin, MT 59631
- 전화 253-315-2667(한국어) / 406-225-3220
1-877-225-3220(Toll-Free)
- 웹사이트 www.merrywidowmine.com